

韓華參戰承啟會 2022.12.22







외국인 묘소

Graveyard for Foreigners

외국인 묘역은 강해립 유공자의 묘소를 24번 묘역에서 이 묘역으로 이전한 2012년 5월 15일부터 외국인 묘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묘역에는 중국 화교로서 6·25전쟁에 참전한 강후이린, 웨이시팡 두 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총 3명의 외국인이 모셔져 있으며 일제 강점기에 3·1운동을 지원하고 국내외에 일제의 잔학상을 알린 프랭크 스킵펠드 박사는 애국지사 묘역에 모셔져 있습니다.

강후이린(姜惠林, 1925-1951)

화교로서 평양에 거주하다 1950년 1사단 15연대에 중군하여 적진정찰, 포로 심문 등의 임무를 수행 중 1951년 2월 경기도 과천시에서 전사하였습니다. 1959년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되어 1964년 24번 묘역에 안장되었다가 그의 공을 후대에 길이 계승하고 널리 알리고자 2012년 5월 15일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웨이시팡(魏緒飜, 1923-1989)

화교로서 1950년 10월 1사단 수색대에 입대하여, 적진정찰, 포로 심문 활동의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휴전 후 함의사에서 국민환자 무료진료, 장학사업 등 사회활동에 기여하다 1989년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며 2012년 5월 15일 그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고자 묘소의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프랭크 W. 스킵펠드(石虎源, 1889-1970)

영국계 캐나다인으로 1916년부터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919년 3·1운동이 벌어진 탑골공원 시위장경 및 제암리 교회 방화 사건의 현장을 촬영하여 국내외에 알리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으며, 1970년 사망하여 애국지사묘역 96호에 안장되었습니다.

Overseas Chinese citizens Jiang Hui Lin and Wei Shi Pang were buried in the Graveyard for Foreigners for their service in the Korean War. This grave site was named the Graveyard for Foreigners on May 15, 2012, when the grave of Jiang Hui Lin was moved here. In Seoul National Cemetery are the remains of three foreigners: Jiang Hui Lin, Wei Xu Fang, and Dr. Frank Schofield. Dr. Schofield supported the March 1st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made the brutalities of the Empire of Japan known to both Korea and the world. He was buried in the Graveyard for Patriots.

Jiang Hui Lin (姜惠林, 1925-1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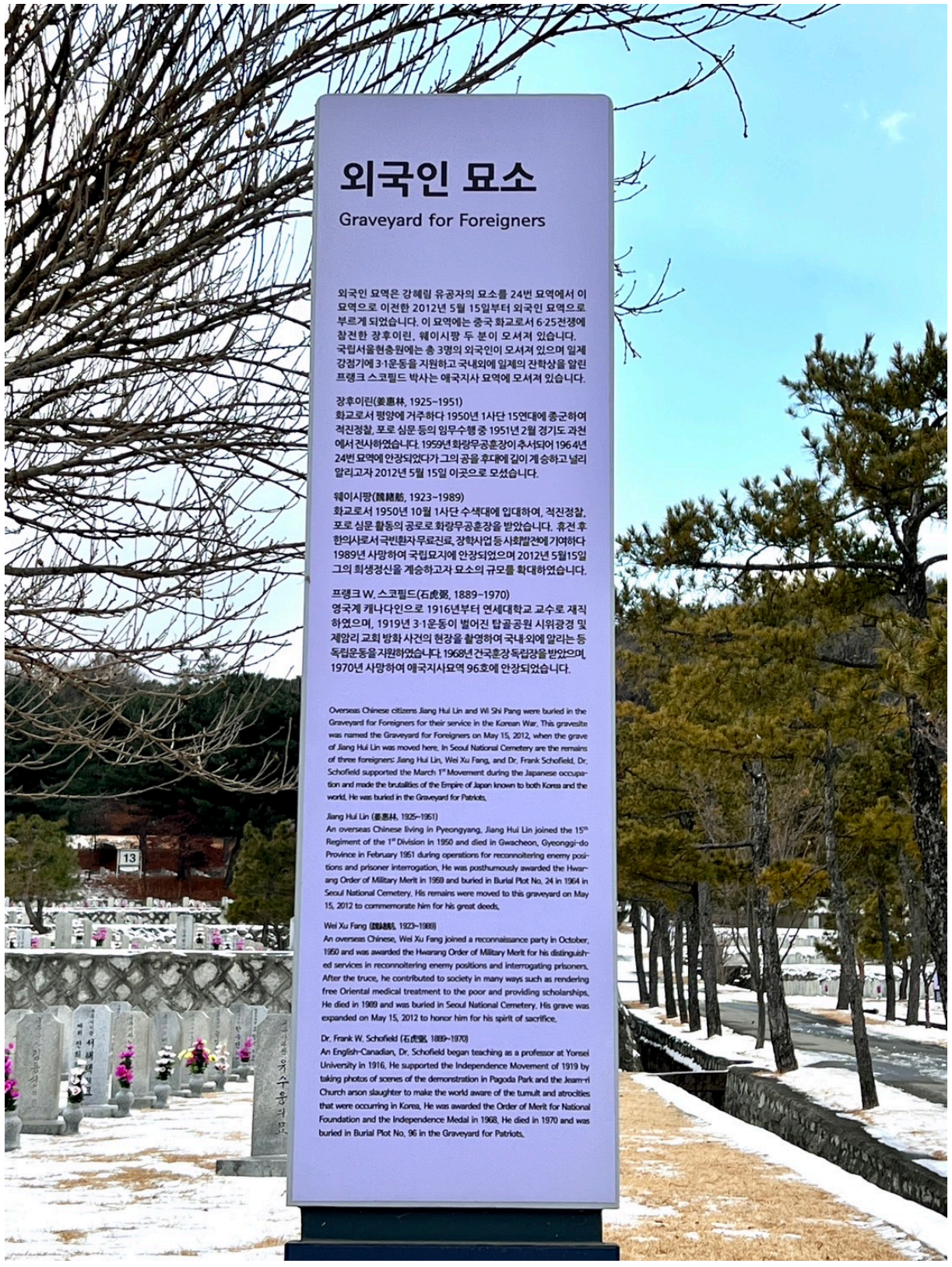
An overseas Chinese living in Pyongyang, Jiang Hui Lin joined the 15th Regiment of the 1st Division in 1950 and died in Gwacheon, Gyeonggi-do Province in February 1951 during operations for reconnoitering enemy positions and prisoner interrogation. He was posthumously awarded the Hwarang Order of Military Merit in 1959 and buried in Burial Plot No. 24 in 1964 in Seoul National Cemetery. His remains were moved to this graveyard on May 15, 2012 to commemorate him for his great deeds.

Wei Xu Fang (魏緒飜, 1923-1989)

An overseas Chinese, Wei Xu Fang joined a reconnaissance party in October, 1950 and was awarded the Hwarang Order of Military Merit for his distinguished services in reconnoitering enemy positions and interrogating prisoners. After the truce, he contributed to society in many ways such as rendering free Oriental medical treatment to the poor and providing scholarships. He died in 1989 and was buried in Seoul National Cemetery. His grave was expanded on May 15, 2012 to honor him for his spirit of sacrifice.

Dr. Frank W. Schofield (石虎源, 1889-1970)

An English-Canadian, Dr. Schofield began teaching as a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in 1916. He supported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by taking photos of scenes of the demonstration in Pagoda Park and the Jeam-ri Church arson slaughter to make the world aware of the tumult and atrocities that were occurring in Korea. He was awarded the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and the Independence Medal in 1968. He died in 1970 and was buried in Burial Plot No. 96 in the Graveyard for Patriots.



외국인 묘소

Graveyard for Foreigners

외국인 묘역은 강혜림 유공자의 묘소를 24번 묘역에서 이 묘역으로 이전한 2012년 5월 15일부터 외국인 묘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묘역에는 중국 화교로서 6·25전쟁에 참전한 장후이린, 웨이시팡 두 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총 3명의 외국인이 모셔져 있으며 일제 강점기에 3·1운동을 지원하고 국내외에 일제의 잔학상을 알린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는 애국지사 묘역에 모셔져 있습니다.

장후이린(姜惠林, 1925~1951)

화교로서 평양에 거주하다 1950년 1사단 15연대에 종군하여 적진정찰, 포로 심문 등의 임무수행 중 1951년 2월 경기도 과천에서 전사하였습니다. 1959년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되어 1964년 24번 묘역에 안장되었다가 그의 공을 후대에 길이 계승하고 널리 알리고자 2012년 5월 15일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웨이시팡(魏緒飭, 1923~1989)

화교로서 1950년 10월 1사단 수색대에 입대하여, 적진정찰, 포로 심문 활동의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휴전 후 한의사로서 극빈환자 무료진료, 장학사업 등 사회발전에 기여하다 1989년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며 2012년 5월 15일 그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고자 묘소의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프랭크 W. 스코필드(石虎弼, 1889~1970)

영국계 캐나다인으로 1916년부터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919년 3·1운동이 벌어진 탑골공원 시위광경 및 제암리 교회 방화 사건의 현장을 촬영하여 국내·외에 알리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으며, 1970년 사망하여 애국지사묘역 96호에 안장되었습니다.

Overseas Chinese citizens Jiang Hui Lin and Wi Shi Pang were buried in the Graveyard for Foreigners for their service in the Korean War. This gravesite was named the Graveyard for Foreigners on May 15, 2012, when the grave of Jiang Hui Lin was moved here. Seoul National University